

‘리터러시’ 정책은 왜 중요한가

독서운동의 새로운 방향과 과제

도정일 _ 경희대 교수, 책읽는사회만들기국민운동 대표

책읽기'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은 최근 몇 년 간 대한민국에 발생한 아주 의미 있는 일의 하나가 아닐 수 없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책'이라면 조만간 지상에서 사라져 없어질 아주 대표적인 '구닥다리' 아날로그 매체라고 여기던 사람들도 요즘은 태도가 많이 달라지고 있다는 소식이다. "아직도 책이야?" 라던 사람들조차 "책을 읽긴 읽어야 하나보다"라는 쪽으로 생각이 바뀌고 있다는 보고들이 사방에서 들린다. 책에 대한 상당수 한국인의 생각과 태도에 이런 변화가 발생한 것은 따지고 보면 무슨 대단한 인식전환이라기보다는 '제 정신 들기'라고 해야 옳다. 디지털과 아이티IT 기술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는 듯이 정신없이 뛰다가 어느 순간 "어이쿠, 그게 아니네"라는, 간단하다면 아주 간단한 진실 앞에 정신이 번쩍 든 그런 형국이다. 돈키호테는 죽는 순간에야 제 정신을 차리는데, 놓았던 정신을 이쯤해서 되찾게 된다면 우리는 최소한 돈키호테보다는 회복 속도가 빠른 편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의 독서문화의 발전과 성숙, 책읽기 운동의 지속적 전개를 위해서는 지금쯤 몇 가지 사항들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먼저 꼽아야 할 것은 책읽기의 '사회적 중요성'이라는 문제이다. 개개의 시민들이 책을 읽는 목적과 이유는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책을 왜 읽는가" 혹은 "왜 읽어야 하는가"에 대한 일반론적 응답을 찾는 일은 별 의미가 없다. 책을 즐겨 읽는 사람들은 이미 그들 나름의 이유를 갖고 있다. 그러나 책을 등진 사람들, 책읽기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거나 책 읽을 조건이 되지 않는 사람들의 경우는 어찌 되는가? 책을 읽는 일은 어쩌서 사회적으로 중요하고 필요한가? 독서운동은 개개의 시민들을 향한 운동이면서 동시에 공동체 집단을 향한 '사회운동'이다. 사회운동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들을 포함해서 우리 사회의 공영

역과 사영역들이 함께 정책을 세우고 실행방안을 강구해야 하는 중요 사안에 대한 시민사회의 문제제기이고 정책요구이다. 그러므로 사회운동으로서의 독서운동은 적어도 책읽기가 어쩌서 개인 차원을 넘어 사회적으로도 중요한 것인가에 대한 설득력을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이런 설득의 확보가 없다면 독서운동은 의미 있는 '사회정책적 사안'의 차원으로 올라서기 어렵고, 운동의 지속적 동력도 공급받기 어렵다.

최근 몇 년 간, 미국을 포함한 서유럽 주요 국가들이 상당한 투자를 기울이고 있는 분야가 이른바 '리터러시literacy 정책'이다. 리터러시는 '독서력'인데, 이때의 독서력이 의미하는 것은 단순 '문해력'이 아니라 그보다 한 차원 높은 "잘 읽고(讀) 잘 쓰는(書) 능력"이다. 구미 각국이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물론 지방정부 단위에서도 부쩍 주민의 리터러시 높이기에 적극적인 정책 투자를 하고 있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다.

1. 잘 읽고 잘 쓰는 능력은 시민의 경제력 제고와 자립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리터러시는 모든 분야에서의 정보 접근, 수집, 판단, 활용의 기본이며 이 기본적 능력 없이는 기회창출, 자립, 삶의 질 향상이 불가능하다.

2. 잘 읽고 잘 쓰는 시민의 리터러시 능력 없이는 민주주의의 유지와 발전이 불가능하다. 민주주의는 정보를 가진 시민, 잘 판단하는 시민, 참여하는 시민을 요구한다.

3. 매체문화환경이 다양해지면서 활자매체와 책읽기로부터 이탈하는 인구가 늘고 있다. 이는 사회적 위기이다. 상상력, 비판력, 사고력의 중심 매체인 책의 힘이 약화되면 사회는 창조성 고갈의 위기를 맞는다.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

결국, 구미 각국이 리터러시 강화 정책을 펴는 데는 '잘 읽고 잘 쓰는 국민' literate nation이야말로 다른 어떤 자원이나 능력보다도 한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발전을 위한 '기본적인 힘'이라는 인식과 판단이 깔려 있다. 우리가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은 바로 이런 정책판단이다. 시민단체들이 전개하고 있는 독서운동은 그냥 단순히 "책 많이 읽어 교양인이 됩시다"라는 차원의 운동이 아니고 좁은 의미의 여가 선용 수준에 그치는 운동도 아니다. 그런데도 우리의 정책 당국은 '책 읽는 국민'을 갖는다는 것의 정치, 경제, 사회적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인식이 없으면 정책도 나오지 않는다.

리터러시 강화 정책은 동시에 국민이 지식정보에 접근할 기회의 평등을 확대하는 일, 국민 각자가 스스로 평생교육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시설환경을 만들어주는 일, 자녀 교육에 부모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는 일 등을 포함한다. 이런 일들은 민간영역의 힘만으로는 되지 않는다. 돈 없는 사람도 책을 읽을 수 있게 하고 평생 학습의 기회를 갖게 하기 위해서는 공공도서관 같은 기본 시설이 있어야 한다. 도서관은 여가 시설이 아니라 부가가치 창조를 위한 생산시설이다. 저출산 시대의 부모들에게 자녀 양육의 경비와 책임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지역 단위의 어린이도서관 시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어린이도서관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시설이 아니라 자녀 양육의 필수적 지원기구이다. 교육은 학교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아이들의 첫 번째 교사는 부모이며, 그것도 '책 읽어주는 부모'이다. 미국 리터러시 운동이 '가족 리터러시'(책 읽는 가족)에 상당한 역점을 두면서 "일 주일에 네 번은 자녀들에게 책을 읽어주도록" 권고하는 이유도 거기 있다. 그쪽의 연구에 따르면 그런 부모들 밑에서 자란 아이들의 학업 성취도는 대조 집단에 비해 두 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와 있다.

우리 중앙정부와 자치단체들은 책읽기 운동이 사회발전과 인간개발의 필수 부분이고 빈곤과 소외를 향한 싸움이며 빈부격차를 줄여 주민 자립도를 높이고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정책이기도 하다는 것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 이것이 리터러시 정책의 사회, 경제, 정치적 중요성이며 공공정책이 필요한 이유이다. 그 정책은 국민을 위하고 주민을 위한 최선의 배려이자 봉사가 아닐 수 없다. **한**

■ 책읽는사회만들기국민운동본부

책읽는사회만들기국민운동본부(공동대표 도정일)는 2000년 6월에 아홉 개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 출범한 독서운동 단체로 기적의 도서관 개관사업, 북스타트 운동을 통해 독서문화 발전에 앞장선 공로가 크다.

기적의 도서관 개관사업은 2003년 '순천 기적의 도서관' 개관을 시작으로 제천, 진해 등 총 7개관을 건립했으며, 최근에는 전국 기적의 도서관을 네트워크화해 기적의도서관전국협의회를 설립했다. 특히 이 사업은 각 지방자치단체 및 사회적 관심뿐 아니라 국가의 도서관 정책에도 큰 영향을 끼친 바 있다.

한편 책과 함께 인생을 시작하자는 취지로 시작한 북스타트 운동은 영유아들이 책과 친해지게 하는 사회적 육아지원운동으로 주부들의 큰 반향을 얻었다. 북스타트한국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펼치는 북스타트 운동은 2003년 서울 중랑구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서울 중구, 인천 연수구 등에서 시행중에 있으며 전국 20여 개의 보건소와 도서관에도 도입할 예정이다.

www.bookreader.or.kr